

분사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확보



SK에너지
R&M, 화학CIC,
자원개발본부,
기술원, CMS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
정보전자소재,
연구개발

SK에너지
(2011.1.1 신설)
정유
(석유, 가스 특수제품)

SK종합화학
(2011.1.1 신설)
올레핀, 아로마틱스,
페트로케미칼, 폴리머,
EPDM

SK루브리컨츠
(2009.10.1 분할)
윤활유/기유

SK에너지는

**독자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11년 1월 1일자로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축으로 하는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으로 각각
분할하였습니다. 회사
분할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각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화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분할 추진 배경과 목적

사업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SK에너지(분할 전)는 지난 2008년부터 CIC(회사 내 회사)제도를 도입, R&M(석유사업 및 마케팅), 화학, 기술원, CMS(경영지원) 등 4대 CIC와 사장 직속기구인 자원개발본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영환경과 에너지 수급상황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회사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양대 CIC인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별도 회사로 독립, 독자적인 책임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회사 분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경영체계 구축은 각 사업의 성장 목표와 자원의 차이, 재무구조 현황, 사업환경 전망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 방법과 절차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물적분할

분할방법 ● 기존 SK에너지는 2011년 1월 1일부로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을 분할하여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번 분할은 존속법인이 각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방식입니다.

분할 후 석유사업을 영위할 신설회사는 'SK에너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여 분할 전 회사가 사용하던 'SK에너지주식회사'를 상호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신설회사는 'SK종합화학주식회사(영문명 SK Global Chemical)'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이 분할되더라도 존속법인의 주식 수 변경은 없으며 2011년 1월 1일 현재 자산은 SK이노베이션 이 14조 1,457억 원, SK에너지(신설회사)가 17조 2,694억 원, SK종합화학이 4조 3,807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SK에너지(신설회사) 3,000억 원, SK종합화학이 1,300억 원으로 각각 출발하였습니다.

분할절차

● SK에너지는 분사를 위해 2010년 5월, 해당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9월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 안건을 의결하였고 11월 26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11년 1월 1일 신설회사들이 출범하였으며 1월 4일 분할 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구조

미래 성장을 위한 독자경영체계 구축

-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정보전자소재, 연구개발 등 자원개발과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추진하게 됩니다. 신설회사인 SK에너지는 정유와 마케팅을, SK종합화학은 화학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분할 전 SK에너지가 운영하던 윤활유 사업은 이미 2009년 10월 1일자로 분할, 신설회사 SK루브리컨츠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분할 기대 효과



분할 변화 관리

변화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추진

- 회사 분할은 고객, 주주와 투자자, 구성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분할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기대를 표명하였고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각 회사들은 분할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음을 알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각종 IR 활동과 직원 설문조사, 사내외 홍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분할이 단기적으로는 각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별 변화 관리

주주·투자자: 독자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주주·투자자들은 분할을 통한 기업가치의 변화와 성장 모멘텀 확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석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축으로 하는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 중심의 SK에너지, 화학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SK종합화학의 성장 전략과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존의 SK에너지(분할 전)는 2008년부터 운영한 독립적인 CIC제제 속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경영체계를 철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00%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인해 일부의 우려처럼 기업가치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분사 후 실적이 크게 개선된 SK루브리컨츠의 사례처럼 자회사의 가치 상승이 존속법인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할로 인한 각 사업의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의 스피드 제고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발휘하여 성공적인 독자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분사로 인한 독자경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되어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 번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이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사가 앞으로 회사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사 이후에 업무 환경이나 조직 분위기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안정되면서 지금은 걱정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분사로 인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

- 많은 구성원들이 분할을 통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대와 의욕을 키워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분할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은 고용안정과 구성원 자긍심,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회사들은 분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독자경영을 조기에 정착시켜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가장 큰 이슈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노사 양측이 고용안정합의서를 체결, 분할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회사가 구성원의 현행신분, 급여, IB, 복리후생, 퇴직급여총당금,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을 포괄 승계하며,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각 회사들은 독자경영의 조기 정착과 함께 도전·창의·긍정의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사기 진작에 주력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롭고 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협력사·지역사회: 고객행복경영과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강화

- 회사 분할 이후 고객 관련 정책이나 협력사 상생협력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와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회사 분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고객과 협력사에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회사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고객행복 경영과 협력사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목표와 전략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독자경영 실현

-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각 회사들은 독자경영체계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에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4조~5조 원, 2020년에 매출 120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각 회사들이 평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속법인과 신설회사는 경영성과 공개, 윤리경영 강화 등 투명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조언을 성실하게 듣고 각 사의 경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